

## 니자와센즈카 (新沢千塚) 고분군

니자와센즈카고분군은 나라 분지 남부의 가시하라시 (橿原市) 가즈초 (一町)·가와니시초 (川西町) 에 소재한다. 소규모인 전방후원분·방분·원분 등 약 600 기의 고분이 구릉상에 모여서 축조되고 있고 일본열도에서도 굴지의 규모인 군집분이다. 1962 년~1966 년에 100 기 정도의 발굴·조사가 시행되었고 1976 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매장시설 대부분은 분구 위에서 묘광을 파고 매장품과 목관을 매납한 목관직장 (木棺直葬) 이지만 221 호분은 출토 예가 적은 횡혈식석실로 석실 도입기의 중기 말엽에 해당한다. 고분시대 전기 후반에 213 호분·500 호분 등의 축조로 고분군 형성이 시작되고 중기가 되면 축조가 정점을 이룬다.

중기에 축조된 126 호분에서 금제 수식부 이식 (金製垂飾附耳飾)·이식 (耳飾)·머리장식품·반지·팔찌·허리띠 장식 등 장신구나 용문투조방형판 (龍文透彫方形板), 청동거울, 유리완·접시나 청동 다리미 (靑銅製熨斗)·칠반 (漆盤) 등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최상급이라 할 수 있는 부장품이 출토되고 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도쿄국립박물관에 수장되고 있다. 109 호분에서도 쇠무기류·고리 방울 (三環鈴)·청동거울 등의 유물과 함께 금제 수식부 이식이 출토되었다. 또 115 호분·139 호분·281 호분·510 호분 등에서는 갑주 (甲冑) 가 부속구와 같이 출토되고 있는데 무기·무구를 풍부하게 부장한 고분도 많다.

후기에도 축조는 계속되고 묘광 내에 스에키가 부장된다. 또 178 호분·206 호분·328 호분 등에서 금동 장식마구 (金銅裝馬具) 가 출토되었고 후기의 262 호분에서 손잡이 부분에 철사 등을 꼬아 만든 반원형 장식을 단 고리자루큰칼 (捻り環頭大刀), 327 호분에서 용문상감대도, 323 호분에서 마노 (瑪瑙) 곱은옥·대롱옥·대추 모양 곱은옥·수정 대롱옥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사한 예가 적은 유물도 많다.

군집분 중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축조가 정점을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고분 피장자의 계층적 확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군집분 축조에 관한 실마리와 그 배경을 찾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니자와센즈카 500 호분

분구 길이 62m 의 전방후원분이다. 센즈카야마 (千塚山) 지구의 남쪽 구릉 정상부에 구축되어 있고 그 축조연대는 고분시대 전기 후반 (4 세기 후반) 으로 생각된다. 매장시설은 총 3 기의 점토곽과 하니와관이 조사되었다. 중심주체는 후원부 중앙에서 조사된 길이 7.85m 에 달하는 점토곽에서 피장자를 매장한 주곽과 그 남쪽 부근에 설치된 부장품격납시설로 추정되는 부곽으로 구성되고 있다.

주곽 중앙에는 장대한 할죽형 목관 (割竹形木棺) 이 안치되어 있는데 도굴되지 않아 관내에서 다수의 구슬류와 기러기발 모양 (琴柱形) 석제품 등 벽옥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부곽은 상형 목관 (箱形木棺) 과 같은 구조로 추정되며 청동거울 5 면 외에 통형동기·팔손이 나뭇잎 모양 등의 청동제품, 차륜석 (車輪石)·돌팔찌 (石釧)·물미 [石製鐵·石突] 등의 벽옥제품, 갑옷 (方形板革綴短甲)·동촉·철검 (鐵劍)·철모 (鐵鉢)·철창 (鐵鎗) 과 같은 무기류, 팽이날·쇠도끼 등의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인골의 매장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시기 전방후원분 부장품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전례 없는 출토 상태를 보여준다.